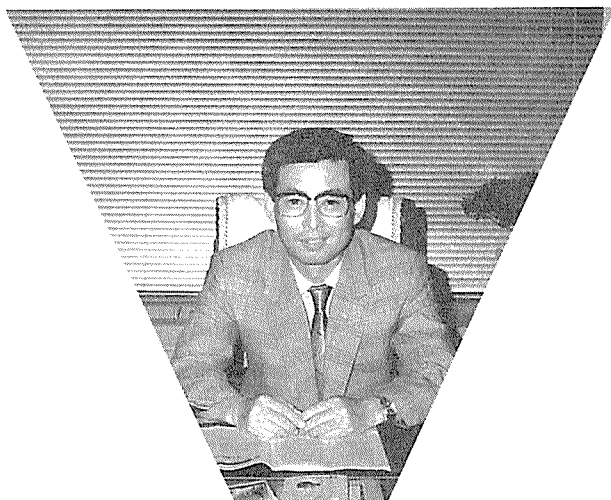


“국민건강에 대한 사명감으로



자신이 쌓은 공적을 남에게 양보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더우기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잘한 일은 모두 자신이 한 것이고, 남이 한 일까지 자신이 한 것처럼 꾸며대는 사람들의 작태에서는...

이렇게 혼탁해진 생활 속에서도 자신이 이룩한 성과를 직장 동료들에게 양보한 서울 제4지구 의료보험조합의 김동현 급여부장을 만나기 위해서 기자는 실로 많은 시간을 요청해야 했다.

『10여년간 의보조합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만 신입사원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강산이 한번 바뀔 세월을 보냈지만 아직도 우리 조합원과 피부양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한 일이 없는 것 같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라며 한사코 취재를 마다하는 김부장은 耳順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양보할 줄 아는 보건종사자로서의 자세를 보여준다.

근질긴 기자의 요청에 못이긴 듯, 『저희 조합에서는 수직적인 상하관계보다

10여년을 일해 왔습니다.’

서울 제4지구 의료보험조합 급여부 **金 洞 賢** 부장

수평적인 상호관계를 통하여 주어진 업무를 전 직원이 협력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어떤 난제가 있어도 쉽게 해결됩니다.’라며 말문을 연 그는, 『이런 점에서 건협과 공동 실시한 건강검사가 국민건강관리 차원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저희 조합 모든 직원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조합원과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를 고민했던 그는, 보험대상자에 대한 각종 질병의 감염 현황과 질병의 위해성을 분석하여 사전 정기 건강 검사의 필요성을 조합내에 인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조합원 피부양자 3천여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가능하게 했으며, 그는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정기건강검사의 정착과 체계화에 관심을 집중하는 동시에 이 검사결과의 추이를 기초자료로 하여 국민건강관리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한다.

『저는 원래 마스크를 전공했습니다만, 우연한 기회에 의보조합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사하던 때는 우리 의보사업이 걸음마 단계였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많았고 저 역시 문외한이었죠. 그런 환경 속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일을 해야한다는 사명감에 저도 모르게 의욕

이 솟구치더군요.』라는 그는, 개척자의 정신으로 정신없이 뛰다보니 벌써 10여년이 지났다며 감회에 젖는다.

그는 또, 『국민건강관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건협에 감사드립니다. 같은 보건업무 종사자로서 건협의 발전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큼니다. 사실 저희 조합원 피부양자 건강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더러는 갈등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다 완전한 검사사업을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건협 13개시도 지부가 검사에서 결과통보까지 모든 업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산 시스템으로 정착시켜나가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관리 정착에 있어 매우 희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사뿐만 아니라 생애를 통한 관리가 더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라 믿어지기 때문이죠.』라며 『건협과같은 대규모 전문검사기관이 확고히 자리를 잡아서, 모든 국민이 보다양질의 서비스를 통한 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인다.

경주 김씨인 김동현부장은 최영옥여사와의 사이에 1남2녀를 둔 가장으로 “정직”을 가훈으로 삼고 대대손손 서울에서만 살아온 토박이라고.

(김 정 현 기자)